

중국의 반격…희토류 수출통제에 美 산업계 ‘비상’

자동차·드론·로봇·미사일 등 핵심 재료…中, 독점적 공급
“미국 기업 대부분, 비축량 거의 없어…심각한 영향”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맞서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미국의 방위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 부문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을 지난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계 발표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통제 대상에는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

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중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 등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중국 정부의 특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는 희토류 공급자로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가지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미국 산업계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수출이 통제된 중희토류는 다양한 전기 모터에 필수

적으로 사용되는 자석의 핵심 재료다. 이 전기 모터는 전기차, 드론, 로봇, 미사일, 우주선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내연기관 차량에도 사용된다.
아울러 중희토류는 제트 엔진, 레이저 장비, 자동차 전조등, 접합 플러그를 제조할 때 활용되는 화학 물질에도 사용되며 인공지능(AI) 서버와 스마트폰 칩의 부품인 커패시터(축전기)의 핵심 재료이기도 하다.
이같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필수적인 중희토류와 희토류 자석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다.
2023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량의 99%를 생산한다.
희토류 자석의 경우 중국이 90%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일본·독일에서 만드는데, 일본·독일도 자석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중국에서 공급받는다.
따라서 미국 산업계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의 ‘주요광물 자문위원회’ 위원장 다니얼 피커드는 중국의 수출 통제가 미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희토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희토류 업체 ‘MP 머티리얼스’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제임스 리틴스키는 특히 군수업체에 대한 희토류 공급이 우려된다며 “드론과 로봇 공학은 전쟁의 ‘미래’로 여겨지는데, 지금 우리는 중요한 물질 공급을 위한 미래 공급망이 닫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독일 등도 사

정권에 포함됐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수출 통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와 대체재 등은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해 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일부 일본 기업들도 1년치 이상의 희토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기업마다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축한 물량 규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희토류 고갈에 따른) 생산 중단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미국 기업 대부분은 원자재 비축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재고를 전혀 비축하지 않거나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파괴된 만달레이의 건물 앞을 13일 오토바이를 탄 한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폐허 속 새해명절 미얀마…축제 대신 복구·추모 사망자 3600명 넘어…군정, 민잔 축제에 춤·음악 금지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새해 전통 물축제가 시작됐지만 강진으로 폐허가 된 미얀마에서는 시름 속에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AFP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인한 미얀마 사망자가 3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진으로 집을 잃은 많은 사람이 여전히 야외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은 식수와 식량을 얻기 위해 줄을 서고 있으며, 폭우 예보에 임시 거처마저 피해를 볼까 걱정하고 있다.
강진 직격탄을 맞은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지점에서는 전날 오전 규모 5.5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 연중 최대 명절이자 축제인 민잔이 13일 시작됐지만 올해는 지진 여파로 축제 분위기를 상상하기 어렵다. 복구 작업과 추모·자선 행사가 축제를 대신하고 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올해 민잔 축제에 춤이나 음

악 없이 평화롭게 축하하라고 명령했다.
군정은 애초 민잔의 유네스코(UNESCO) 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대규모 축하 행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양곤과 만달레이 등 주요 도시 행사가 대거 취소됐다.
가족 9명과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55세 만달레이 주민은 “올해는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전통이기 때문에 꽃이 든 화분을 준비해야 하지만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애도 기간임을 감안해 아이들에게 거리에서 물을 뿌리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고 덧붙였다.
4월 중순 민잔 물축제는 미얀마 연중 최대 행사이자 축제다. 민잔은 한국 설에 해당하는 미얀마고유의 새해 명절이다.
이때 불운을 씻고 새해를 태어난다는 의미로 서로 물을 뿌리는 전통이 있다. 거리에서는 불사쑤과 물놀이가 벌어진다. /연합뉴스

트럼프 “반도체 관세율, 머지않아 발표”

“일부 기업엔 유연성…아이폰 관세도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율이 얼마나 될지 묻는 말에는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또 반도체 관세에 있어서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이폰에 부과하는 관세 역시 “곧 발표될 것”이

라면서 “일부 유연성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등 전자제품이 관세에서 예외된 것이 아니라며 관세 부과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체질의 US스틸 인수가 참여하는 “US스틸이 일본으로 가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최근 미국과 10년 만에 고위급 핵 협상을 재개한 이란과 관련해서는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단 반군 ‘인종 학살’ ? …민간인 200명 사망

난민캠프 공격…구호단체 의료진·활동가 등 9명 전원 살해

수단 내전 발발 2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나라 서부 다르푸르 권역의 중심지인 엘파세르를 포위한 반군이 난민캠프 등을 공격해 민간인 200여명이 사망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사망자 집계에는 반군인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이 북다르푸르주 엘파세르로 가는 길목에서 점령한 움카다다 마을에 가한 이틀간 공격으로 숨진 민간인 56명이 포함됐다.
엘파세르로부터 동쪽으로 180km 떨어진 움카다다에서 숨진 민간인들은 특정 종족에 속한다는 이유로 RSF가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인종학살’ 사례로 보인다.
엘파세르는 다르푸르 권역에서 수단 정부군이 아직 장악하고 있는 마지막 주요 도시다.
유엔은 엘파세르 근방의 잡잡과 아부슈크 등 난민 70만명이 대피 중인 대규모 난민캠프 2곳에서 RSF가 민간인을 계속 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제구호단체 ‘릴리프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던 잡잡 캠프 내 마지막 진료소에서 진료소장, 의사, 구호 요원 등 의료진 9명 전원이 살해당했다.
RSF가 은신 중인 정부군 군인들을 색출하겠다고 캠프 전역의 건물들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소

식도 들린다.
난민캠프에서 자행되고 있는 민간인 살해 등의 정확한 피해 규모나 실상은 RSF가 통신을 고의로 단절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56년 독립 이후 잦은 내전과 정치 불안 겪은 수단은 군부 최고지도자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과 모하메드 하만 다갈로 RSF 사령관의 권력 투쟁으로 2023년 4월 15일부터 정부군과 RSF 사이에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RSF는 내전 발발 이래 서부의 다르푸르 권역을 대부분 장악하고 국가 수도인 하르툼도 한때 점령했으나, 중부와 동부 권역에서 정부군에 밀리며 지난달 말 하르툼을 정부군에 내줬다.
이에 수단 정부군은 동부와 북부 권역을, RSF 반군은 서부의 다르푸르 대부분과 남부 권역 일부를 각각 통제하며 대치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내전으로 수만 명이 숨지고 12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구호단체 국제구조위원회(IRC)는 “기록된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수단 내전에서 양측을 모두 비난해 왔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RSF는 다르푸르에서 인종학살을 저질렀고 정



수단 북다르푸르주 잠잠의 난민캠프에서 한 수단 난민 여성이 아이와 함께 쉬고 있다.

부군은 민간인들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주말에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사망을 계기로 데이비드 레이 영국 외무장관은 수단 내전 발발 2주년이 되는 15일 런던에서 주변국들과 국제기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에 대한 장관급 회의를 주최하면서 민간인 보호 문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추가로 받게 됐다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특히 과거에 RSF를 지원해왔던 아랍에미리트(UAE)가 명확하게 RSF를 규탄하는 성명을 낼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제 구호단체들은 “인종학살,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 기근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이고 기술적인 해결책들을 추진해야 한다”며 래미 장관에게 비상 대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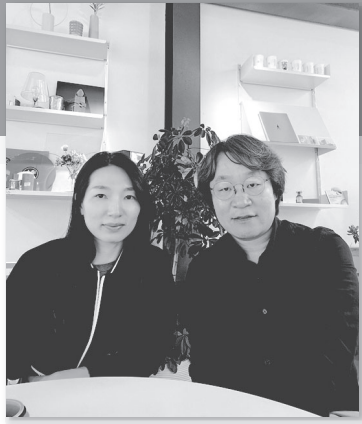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